

##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에서 DATT의 유용성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서정주 · 최지영 · 박자용 · 최혁준 · 장민화 · 김준철 · 김찬덕 · 박선희 · 김용림

투석적절도검사 시 24시간 투석배액에서 측정하는 D/Pcr (Dialysis adequacy and transport test, DATT)은 복막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복막평형검사 (PET)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. 그러나 실제 DATT로 평가된 복막용질이동특성이 PET과 다른 경우가 많다.

**목적**: 연자들은 DATT와 PET의 결과를 분석하여 DATT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PET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 원인을 알아보려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방법**: 96명의 환자에서 같은 시점에 측정된 164회의 DATT(24hr D/Pcr)와 PET (4 hr D/Pcr) 결과를 분석하였다. 평균 4시간 D/Pcr은  $0.67 \pm 0.10$ 이었다. 측정된 4시간 D/Pcr 수치에  $0.05$ 를 더한 후  $\pm 1$  SD (표준편차,  $0.10$ )내에 24시간 D/Pcr 수치가 있는 경우 DATT와 PET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. DATT>PET (A군,  $n=23$ ), DATT=PET (B군,  $n=130$ ), DATT<PET (C군,  $n=11$ )으로 구분하여 각 군의 복막특성과 투석적절도 지수, 일일 투석 처방 및 투석 교환 횟수 등을 비교분석하였다.

**결과**:

- 1)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 $50.9 \pm 13.4$ 세, 남녀비는 50:46, 평균 체표면적은  $1.6 \pm 0.2$   $m^2$ 이었다.
- 2) DATT와 PET을 시행한 당시 평균 투석 기간은  $10.3 \pm 10.2$ 개월 (1-59개월)이었고 원인신질환의 36.6%가 당뇨병성 신증이었다.
- 3) DATT의 평균 24시간 D/Pcr은  $0.74 \pm 0.11$ 이었고 PET의 평균 4시간 D/Pcr은  $0.67 \pm 0.10$ 이었으며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( $r=0.786$ ,  $p<0.0001$ ).
- 4) 총 164예 중 130예 (79.3%)가 24시간 D/Pcr과 4시간 D/Pcr이 일치하였고 나머지 34예 (20.7%)는 일치하지 않았다.
- 5) A군에서 평균 4시간 D/Pcr이 다른 두 군에 비하여 낮았다 (A군,  $0.59 \pm 0.11$ ; B군,  $0.68 \pm 0.10$ ; C군,  $0.72 \pm 0.09$ ;  $p<0.05$ ).
- 6) 투석액 주입량은 A군  $7026.1 \pm 978.5$ , B군  $7552.5 \pm 1095.2$ , C군  $8000.0 \pm 0.0$  (mL)로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( $p<0.05$ ), 일일 투석 횟수도 A군  $3.61 \pm 0.50$ , B군  $3.86 \pm 0.41$ , C군  $4.0 \pm 0.0$  (회)로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( $p<0.05$ ).

**결론**: DATT는 PET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유용한 검사이나 20.7%의 예에서는 24시간 D/Pcr이 PET의 4시간 D/Pcr과 일치하지 않았다. 저투과특성을 가진 경우 혹은 투석액 교환 횟수가 적거나 투석액 주입량이 적은 경우 24시간 D/Pcr은 4시간 D/Pcr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어 이런 경우 DATT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